

韓國林業發展을 爲한 山聯의 使命^{*1}

趙 聖 來^{*2}

1. 산림단체의 연혁

가. 해방전

○ 이조 중엽 이후 발전된 향약(鄉約)제도의 유래로서 송계(松契) 애림계(愛林契) 등의 자생조직의 계가 곳곳에 조직되고 있었다.
 ○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정책을 펴면서 농촌의 계조직을 그들의 정책수행에 이용하기 시작, 연과 군단위로 삼립조합의 설립을 권장하였던 바 이를 위한 행정조치의 예를 들면

○ 1913년 월 평안북도지사 고유(告諭)로서 삼립보호 규약을 시행하였고
 ○ 1914년 2월 함경북도지사 고유로서 삼립산야보호조합 규약준칙이 시행되었고
 ○ 1915년 경기도의 삼립보호조합 준칙이 시행되었으며 다른 각도에서도 관의 장려 또는 지역민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삼립조합 조직이 증가되어
 ○ 1921년 9월에는 삼립조합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창설되었고

○ 1928년에는 경기, 천남, 평북, 평남도 삼립조합 연합회가 설립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19년 기미만세 사건을 계기로 한국민족자결운동의 억제책을 강화하여 자생조직 색채를 띠거나 민의 부담을 줄 염려가 있는 모든 단체운동을 폐쇄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 1932년 4월 삼립조합과 각도연합회를 전면적으로 폐지시키고 그 업무를 각도청에 이속하는 동시에 도세(道稅)로서 임야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서 산림보호관리(官吏)를 배치하였으며 삼립조합의 재산은 그 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조선산림회에 인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삼립조합의 폐지에 앞서

○ 1921년 6월에는 전국 임업관계 행정간부와 유지, 대면적 산림경영자를 구성원으로한 조선산림회를 설립하고 각도에는 지부를 설치하였다.

○ 1927년에는 산림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었다.

○ 1933년에는 도지부를 도산림회도 개편 설립하고 필요한 지역의 군단위에 도산림회의 지부를 설치하여 목탄, 쟁목, 산림부산물의 매매 알선업무를 맡게 하였다

나. 해방후

○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구산림회의 후신으로 조선산림회연합회와 각도산림회 및 군지부가 남한지역에서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 1949년 10월 28일 농림부령 제 13호로 중앙산림조합연합회 조직위원회 규정을 시행하여

○ 1950년 1월 18일 사단법인 중앙산림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구산림회재산을 인수 하였으며 각지도연합회와 각지군산림조합을 각각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한편

○ 1951년 9월 21일 법률 제 218호로서 제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계를 전국 자리동에 걸쳐 조직케 하여

○ 1952년까지 사단법인 산림조합과 공법인 산림계조직을 완료하였다.

○ 1954년 10월 중앙산련에 경영, 양묘, 임산가공, 원목신판등 4개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 1956년 12월 중앙산련특수임산사업소를 설치하여 균류배양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1961년 4월 각도산련청 산규정을 만들어 각지도산련을 해산하고 이를 연합회 각도지부로 개편하게 되었다.

다. 혁명후

○ 1961년 12월 산림법 제정으로 종래의 사단법인 산련은

○ 1962년 5월 18일 산림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제발족하여 전국산림조합과 산림계를 산림법에 의한 계통조직으로 개편하였다.

2. 각급산림계통조직의 현황

가. 설립목적과 임무

(1) 산림계

리동산림계는 산주와 부락주민이 협조하여 자율적인

*1 The Goals of Korean National Federation of Forestry Associations Union for the Development of Forestry in Korea

*2 Seong-Rai Cho, 大韓山林組合聯合會會長

산림보호와 조림, 육림의 적화한 성과를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주요업무는

- 산림용 종자채취와 양묘
- 약료림 조성과 대진행 및 분수조림.
- 산림부산물 생산에 의한 농외소득증대
- 계원이 위탁하는 산림사업.
- 산림에 관한 공동사업과 계원의 공동이익증진 등이다.

(2) 산림조합

시군 산림조합은 조합원인 산림계와 산주 산림사업 경영자가 행하는 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그 전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주요업무는

- 조합원의 산림사업조정과 영립계획 작성
- 조합원의 업무활동 조장과 공동시설
- 자체자금 조성과 임업자금 알선
- 대진행과 수탁 및 자체조림
- 산림용, 조공용, 가로수용, 양묘, 젠디포경영 등을 양묘지도.
- 산림부산물생산 수집 보관 가공과 알선
-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 지도와 용역사업등이다

(3) 연합회

산림조합연합회는 산림조합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를 위한 주요업무는

- 조합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한 보조금 교부
- 시범양묘 조경용 대묘이식 채수포와 잔디포 경영
- 자체조림과 기업림의 시범경영
- 임산물의 수급과 무역
- 자체자금 조성과 임업자금 알선
- 벼섯종균, 산림해충 천적과 균류균 배양
- 임업기술 보급과 계몽지도등이다.

나. 조직의 현황

73년 말 현재 산련계통 조직의 개황을 보면

(1) 이동산림계

조직수 21,423개에 2,354천명의 계원이 가입되고 있어 1개당 평균 계원수 110명 최고 487명 최저 20명이며, 계원중 산주가 전체 계원의 33% 비산주가 67%를 차지하고 산림계의 지역유형에 따른 분포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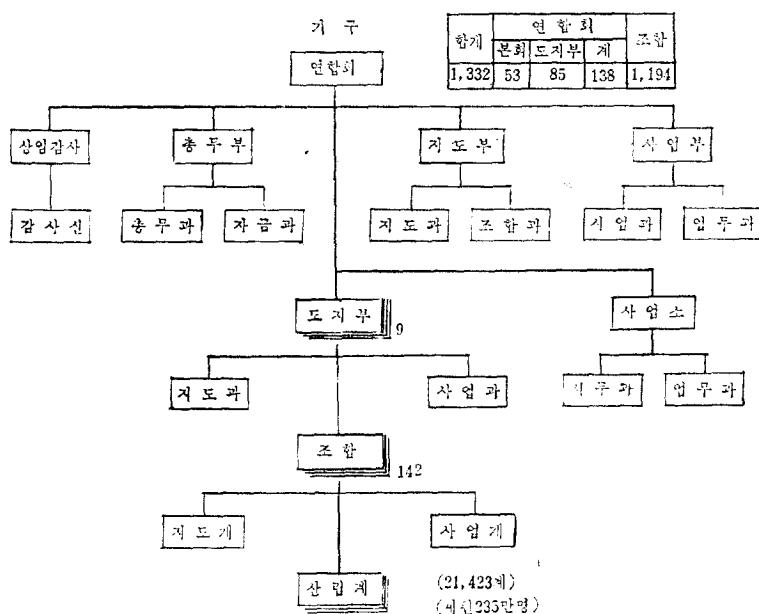
- 산촌지역 산림계가 8,164개 (38%)
- 중간지역 산림계가 7,605개 (35%)
- 평야지역 산림계가 4,018개 (19%)
- 도시부근 산림계가 786개 (4%)
- 어촌과 섬 산림계가 850개 (4%)

로 되어 있다.

(2) 시군 산림조합

부산, 대구, 광주, 제주등 4시조합과 138개 군조합을 합하여 총 142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1조합당

기 구 표



평균조합원수(산림계)는 151개 최고 464개(화성) 최저 23개(울릉)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조합에 종사하고 있는 상근임직원수를 보면 총 1,194명으로 1조합당 평균 8.4명 최고 16명(입실) 최저 4명(대구)이며 그중 농림기술직이 60% 행정직이 27% 기능직 기타 13%를 차지하고 있다.

(3) 연합회

각시군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고 중앙본부에 상임 감사실과 총무, 지도, 사업등 3부산하에 총무, 자금, 지도, 조합, 사업, 업무등 6개과와 직할 경농사업소 까지 통하여 회장이 하 5인의 상임임원을 포함한 5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각도에 연합회의 출장소 역할을 맡아보고 있는 9개도지부가 있어 각기 지도, 사업, 2파를 두고 각지부장 이하 8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어 그중 규모가 작은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지부에는 평균 10명의 직원이 배치되고 있으며 산하조합의 지도 감독과 각도청 및 연합회 본부의 연락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재산과 주요시설

○ 산림계통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재산은 소유 청사, 회관 창고등 건물과 그 부지(敷地) 그리고 양묘용 포지(圃地)와 그 부속시설 소유임야 및 조림목, 오토바이, 분무기등 약간의 장비들이 있는데 73년 말 현재 추정 환산액 약 29.6억 원으로 그중 산림계가 18억 원(61%) 산림조합이 7억 원(23%) 연합회가 4.6억 원(16%)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이밖에도 아직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유대부림 91천ha 분수계 약한 위탁림 약 62만ha 그리고 72년도부터 전국조합과 연합회가 의지를 모아 출자하기 시작한 자체기금 9천만원을 축적하고 있다.

○ 이와같은 재산과 시설은 아직도 보잘것은 없으나 혁명후 설립당초 쓸모가 적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든 근소한 인수재산을 가지고 출발한 산림단체가 그동안 연합회 본부를 위치하여 9개도지부가 모두 새로운 자체 청사를 마련하고 년간 10만kg 규모의 사업소 종균배양 시설을 보유하여

○ 시군조합도 99개 조합의 자체청사와 14개 조합의 입산을 보관창고를 비롯한 묘포지 61만평등을 새로 조성하여 1조합당 평균 5,274천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산림계에 있어서도 3천여동의 회관과 63만평의 묘포지 16천ha의 임야등 자체재산을 조성하여 새마을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유대부림의 조림성공으로 무

상 양여 받은 것이 산림계가 5,330ha 연합회가 1,217ha에 달하고 있다.

기관별 소유 재산 및 주요시설

| 구 분 | 단위 | 계 | 산림계 | 산림조합 | 연합회 |
|-------|-----|-------|-------|------|-----|
| 총 환산액 | 백만원 | 2,835 | 1,807 | 749 | 279 |
| 건 물 | 동 | 3,212 | 3,039 | 150 | 23 |
| 대 지 | 천평 | 134.5 | 111.5 | 19 | 4 |
| 묘 포 지 | " | 1,395 | 630 | 614 | 151 |
| 소유임야 | 천ha | 18.5 | 16.5 | 0.9 | 1.2 |
| 대 부 릴 | " | 91.5 | 82 | 1 | 8.2 |
| 위탁림 | " | 619.5 | 617 | 2.5 | — |

라. 74년도 예산규모

(1) 연합회

74년도 연합회예산은

○ 일반회계 4,480백만원

○ 양묘사업대체예산 991 백만원

○ 재산관리특별회계 84백만원

○ 기업립관리특별회계 39백만원

○ 지부직영사업특별회계 186백만원

계 5,780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계(純計)예산은 3,244백만원인바 이의 수입 지출 과목별 내역을 보면

○ 수입에 있어서

연료림조성, 산주대회 산림조합육성 등 정부수탁사업 보조금이 565백만원(17%) 산림부산물과 종균, 산림지 등 판매대가 1,803백만원(56%) 산림부산물의 수출에 의한 무역수입이 819백만원(25%) 타회계에서 전입금, 전년도 세제이월금 기타 자체수입이 57백만원(2%)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지출에 있어서

산림부산물 수출을 위한 무역사업비가 797백만원(24%).

산림부산물생산 및 수집사업비가 1,695백만원(52%) 연료림조성사업비가 472백만원(15%) 균류배양사업비가 70백만원(2%), 산림조합상무이사급여보조, 산주대회 산림지발간, 요원교육 계몽선전 등 산림조합육성 및 지도사업비가 87백만원(3%), 연합회본지부 인건비 사무비등 운영비가 116백만(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군 산림조합

142개 시군 산림조합의 74년도 수입지출 예산 규모는 총 35억 원으로서 1개조합당 평균 24,660천원이며 최고 규모가 경북 의성군조합의 80,217천원 최저조합

은 2,139 천원의 영세조합도 있다.

○ 조합평균 수입예산액을 과목별로 보면 묘목대 수탁양묘 선수금(先受金), 연료림조성, 수탁조림, 보호 산림부산물 생산비 선수금 알선등

사업수입 13,298천원(54%)

조합비 4,531천원(18%)

상무이사급여, 산주대회비, 기타 지방비등 보조금 822천원 (3%)

재산매각대, 임대료등 재산수입 369천원(2%)

양묘시업비, 전입금, 장단기, 용자금등 차입금, 3938 천원(16%).

과년도조합비, 이월금, 예금이자등 1,702천원(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합당 평균지 출예산액을 과목별로 보면

○ 연료림 조성, 수탁조림, 밤나루고접, 양묘, 보호 산림부산물생산, 벌채, 가공, 종자채취, 조경, 알선등 사업비 15,774 천원(64%),

산림계육성, 산주대회, 교육, 기술지도, 계동선전등 지도사업비 1,796천원 (7%)

재산매입, 조성, 시설관리등 재산조성비 906천원(4%)

인건비, 사업비등 운영비 3,536천원(15%),

장단기 용자금상환재원, 기금등 적립금 439천원(2%), 장단기 차입금 및 동이자등상환금과 예비비등 2,209 천원(8%)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에 있어서 조합비는 부과총액 643,330천원이며

1개조합당 평균 4,531천원이며 최고조합은 10,141천 원 최저조합은 654천원, 그리고 지출에 있어 조합운영비는 총액 502,175천으로 1개조합당 평균 3,536천원이며, 최고 조합은 6,999천원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바 상근(常勤) 임직원 10명 정도로서 비교적 규모가 잡힌 표준조합의 연간운영비 규모는 5백만원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 주요사업 실적

혁명후 62년도 부터 작년도까지 산련 계통 조직에서 이루어진 주요사업 실적을 개괄(概括)하면

(1) 조림·사방

○ 혁명 당시 37 만ha에 달하는 황폐지(荒廢地)를 단기녹화 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63,64양년도에 걸쳐 막대한 소요량의 풀씨와 임목종자 채취, 그리고 사업을 위한 산림계원의 노력동원을 하였으며 산련에서는 녹화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65백만원(구화)을 모금, 긴급소요공사비의 충당에 이바지하였다.

○ 연료림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65년도부터 3개년간에 걸친 40만ha의 단기 조성사업을 정부가 추진함에 있

어 막대한 소요량의 종자 채취로부터 66년도에 7억본에 달하는 묘목생산과 조림지도에 협력 하였던 것이며 70년도 이후에는 연료림조림. 관리등 조성사업을 산림조합이 전담하여 73년도까지 53천ha의 조림을 실시하였다.

○ 또한 산림계, 산림조합과 연합회에서는 63년도부터 이태리 포푸라 증식에 역점을 기울여서 총2천만본을 증식한 것을 위시하여 근년에 와서 개량종 밤나무조성과 장기수등 자체조림에 노력하여 73년도까지 2,400ha의 자체조림을 하였다.

(2) 양묘 사업

○ 산련양묘는 혁명당시 연료림조성및 사방용 아까시아 단일수종으로 산림계 양묘 위주로 그전답지도 원을 산림조합에 배치하여 실시하여 오다가 재해(災害 대책문제와 공동작업의 취약점(脆弱點)등문제점이 많아 63년도 이후 점차 산림조합 적영양묘로 전환하여 당초에는 기술. 자금 포지문제등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현재에는 조합양묘는 거의 완벽한 기술준준에 도달하였고 수종도 차차 티기다소나무 이태리포푸라 은수원사시나무, 밤나무, 오리나무등으로 확대하여 왔다.

○ 한편 연합회에서도 각도지부로 하여금 조합양묘기술시범교육 목적과 자체운영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경부지정 양묘중일부를 적영사업으로 경영해 오던중 근년에 이르러서는 은수원사시나무 채수포 경영과 조경수양묘, 잔디포경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 이렇게 하여 산련계통에서는 정부지정사업 계획 중 약 30%에 가까운 사업량을 맡아서 연합회와 조합이 1,512백만본 산림계가 1,293백만본을 생산공급 하였다

(3) 산림부산물생산 및 수집사업

산림부산물의 생산 및 수집사업은 현지 주민의 소득증대와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크게 이바지하는 좋은 사업으로서 쳇을 갈자와 굴참나무 수괴로 부터 출발하여 차차 송이, 떡갈잎, 잔디씨까지 담당하고 62년도 이후 73년도까지 3,258백만원의 농가소득과 48백만본의 수출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4) 균류 배양사업

연합회에서는 정부지시사업으로 표고종균을 비롯한 송충경화병균, 송충바이러스, 비료목근류균등, 균류배양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임업소득 증대와 녹화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배양하여 공급한 실적은 표고종균 327톤 송충경화병균 및 바이러스 271천병 균류균 47톤에 이르고 특히 표고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생산증식의 확충에 노력하여 수출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5) 분수조림 (分收造林)

산주조림의 육과 능력부족으로 산림계가 대집행 하거나 산주와 산림계 간의 합의에 의한 분수계약 체결로 조림한 수탁임의 관리는 산림계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 동시에 자기山이 없는 산림계원에 대한 분수에 의한 합리적인 임산물 공급방도의 하나로서 산련과 산림조합은 발족이후 이의 지도 장려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73년 말 현재 대집행 명령 또는 산주와의 합의에 의한 분수계약 체결실적이 총 누계 면적 1,069천ha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개간, 초지(草地)조성, 땅수몰지화, 재조림, 기타부지화(數地化)로 용도가 전환된 것도 있고 관리 또는 별채 용역계약기간이 종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존폐(存廢) 구분과 더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하여 72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인 위탁임정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6천 ha의 위탁임을 관리 중에 있다.

(6) 산림계 환원사업

산림계 육성을 위하여는 각 조합에서 분수계약에 의한 위탁임과 대부임 관리경영지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외에 환원사업으로서 매년 조합비의 20~30% 해당액을 투입하여 포푸라, 유실수등 묘목의 공급과 밤나무고점사업, 양묘사업, 분구(焚口) 개량기금 조성, 가축증여, 해충약제지원, 해충매상(害蟲買上), 농기구지원, 업무용품지원 교육포상 지도원배치 등으로 년차계획에 따른 시범 산림계를 조성하여 가고 있다.

62년부터 73년까지 각 조합이 투입한 산림계 환원사업비는 611백만원으로 작년 말 현재 18억원의 산림계 기본재산을 조성하였다.

3. 74년도 사업계획

이상과 같은 산련조직의 자취와 현황을 토대로 정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제2차년도에 해당하는 7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련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업무 목표를 세워서 각종 사업에 일하고 있다.

가. 74사업목표

(1) 조직의 체제정비

조급조직의 임직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235만 산림계원의 종화유신체제를 유도하며 산주를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정부 산림시책에 대한 민간추진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 연료림의 효율적인 조성

임산연료의 의존도가 큰 중간마을·산간마을을 대상으로 연료림을 집중조성하기로 하고 이것을 산림계원의 새마을 공동작업체제로 기필코 성공시켜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밑받침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3) 산주조림 촉진

산주가 조림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재력은 있어도 기술이나 수속방법, 시간, 거리관계로 직접 실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주의 요구에 따라 조림설계를 하고 상호 약정하에 소요경비를 부담하면 조림을 대행하여 주는 수탁조림(受託造林)제도를 마련하고 또 재력이 부족한 산주에게는 임업기금융자도 알선하여 산림법이나 산림개발법에 따른 연차계획조림을 대집행(代執行)이 아닌 산주자력조림으로 차질없이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것이며 조림에 필요한 묘목의 생산단계부터 산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수탁양묘도 아울러 실행하기로 하였다.

(4) 임산물수집 및 무역활대

갈저, 송이, 떡갈잎, 잔듸씨, 굴참나무수피, 표고, 기타 수실(樹實)등 각종 산림부 산물은 기왕에 산련체 통조직을 통하여 생산, 수집하고 있는 것이나 이를 산림계는 생산하고 산림조합은 기술지도와 생산품의 수집, 보관 역할을 하고, 연합회는 생산계획수립과 자금조달, 생산수집에 대한 지도, 감독, 생산품의 수급조정을 하며 정부 및 지방행정관서는 본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는 일련의 체계를 확립하여 임산소득과 수출증대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며 금년부터는 생산품의 수출업무를 산련에서도 직접 담당하여 생산품의 유통질서화립과 수출과정에 있어서의 상사(商社)들의 이득폭(利得幅)을 생산자 농민에게 돌려 소득증대에 더욱 이바지 하기로 하자는 것이다.

(5) 임업기술보급강화

치산녹화 10년계획의 기본방향인 국민조림 정신을 계도하고 임업기술의 보급활동을 산련주체로 강화하고 산주에 대한 지도, 상담, 용역업무를 강화하여 산주를 위한 조직체가 되자는 것이다.

나. 세부사업계획

(1) 체제정비

- 임명제 실시에 따른 유능한 조합장 기용
 - 전형시험에 의한 유능한 상무이사 선발 기용
 - 조합직원 임용제도개선과 자질향상
 - 대면적 소유산주와 산림관계사업 경영자의 특수 조합원 가입추진
 - 도시구역의 영세조합 및 산림계 병합정비
- (2) 지도사업강화
- 기구강화—중앙에 지도담당이사 및 지도과신설, 도지부서무과를 지도과로 개편강화, 시군조합서무

제를 지도계로 개별 강화

- 요원교육—조합장, 상무이사, 조합직원교육 586명
- 산주대회—국 및 도단위 78,680명
- 임업기술연찬—각사업별 기술 현지 실연교육 5,269명
- 산림지 발간—월간 20,000부씩 12회
- 임업기술교재 발간—3,300부
- 임업기술리후렛 발간—20,000매
- 신문방송임업기술교도—49회(라디오 고성 방송실시)
- 임업기술상담소 설치운영—142개 조합 및 9개 도자부에 설치, 운영.
- 산림사업 뉴스영화제작 상영

(3) 양묘사업

정부지정에 의한 산림사업용묘목과 가로수용 묘목을 계획대로 전량 생산하여 산주의 자체조림용 묘목과 조경용 및 대묘이식 잔디포 경영등 자체계획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산림조합 양묘포지를 중심으로 새마을 양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방침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양묘사업을 계획실시하고 있다.

- 쇠계획량 양묘 : 239,265천본
잔디포조성 : 40ha
- 산련직영 양묘 : 11,895천본
잔디포조성 : 40ha
- 산림사업용묘목 : 9,070천본
- 조경묘및 대묘이식 : 2,825천본
- 잔디포조성 : 40ha
- 산림조합 양묘 : 227,370천본
● 산림사업용(지정) : 206,470천본
- 가로수용(지정) : 900천본
- 산림사업 및 조경용(자체) : 20,000천본

(4) 조림사업

산림계에서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실시하는 연료림조림과 산림조합에서 산주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탁조림, 산주가 조림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산림계, 산림조합이 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대집행조림, 그리고 산림계와 산림조합 및 연합회가 각소유림 또는 대부림에 실시하는 자체조림 등으로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 연료림조림 30,000ha
- 수탁조림 339ha
- 대집행조림 12,648ha
- 자체조림 889ha
- 산림계 538ha

- 산림조합 280ha

- 산련 71ha

- 연료림육림(계획) 96,000ha

(5) 기업림관리

연합회의 회유림 1,265ha와 대부림 8,225ha 등 9,491ha의 자체 기업림을 시범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독립채산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실시하고 있다.

- 경영관리 9,491ha
- 양묘 110천본
- 조림 102ha
- 임도시설 34km
- 별채사업 740m³
- 표고재배
- 비섯나무관리 2,820m³
- 신규접종 500m³
- 견표고생산 7,980kg

(6) 산림부산물 생산수집

산련계통조직의 전당사업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우량품 생산과 적정가격유지를 도모하여 산림계원의 소득과 수출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 갈지생산 400톤
- 굴피생산 800톤
- 송이수집 200톤, 산련직수출 50톤
- 표고수집 218톤, 산련직수출 60톤
- 떡갈잎생산 4만상자, 산련직수출 2만상자.
- 맹계잎생산 1만 5천상자, 산련직수출 5천상자
- 잔디세수집 500, 톤산련직수출 100톤
- 수출지원액 16백만불, 산련직수출액 2백만불 농가소득액 30억원

(7) 균류배양

버섯종균과 송충구체를 위한 병균, 바이러스, 비료목 균류균등 산림사업용 균류에 대한 우량계통의 선발 육성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량을 계획 실시완료 하였으며 시설을 더욱 확충할 것이다.

- 버섯종균배양 103톤
- 송충경화병균배양 4만병
- 송충바이러스증식 8천명
- 비료목균류균배양 2톤

(8) 산림조합 및 산림계육성

산림조합과 산림계에 대하여는 지역별특수사업을 개발확대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산림조합은 특수조합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산주와 산림사업경영자를 위한

용역활동을 강화하는 조합으로 발전시킬 방침하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 | |
|-------------------|----------|
| ○ 영세조합지원 10개 조합 | 2백만원 |
| ○ 상무이사급여보조 142명 | 3천만원 |
| ○ 분수제약체결 | 16,800ha |
| ○ 산림계환원사업 | 217백만원 |
| ○ 자체회전자금알선 | 55백만원 |
| ○ 재특회전자금 및 임업기금알선 | 190백만원 |

4. 당면문제점과대책

이상과 같은 산련의 내력과 임무를 요약해보면 해방후 5.16혁명까지에 급격히 황폐되었던 산림을 시급히 복구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계를 조직하고 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조림, 육림등 산림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조합과 산련을 설립토록 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그간의 산련의 업무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익증진 또는 경제단체로서의 존재의의 보다 국가적 공익사업을 주임무로 삼아왔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산련단체는 그와 같은 공익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국가적 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각 시군 산림조합이 연년 기관자체의 운영비에도 미달하는 조합비를 산하조합원인 티동산림계로 부터 징수하여왔을 뿐 각도지부를 포함한 연합회는 제도상에 규정된 회비를 산하회원조합으로부터 징수할 형편이 되지않아 매년 운영경비를 근소한 자체사업수입과 국고보조에 의존하여왔다.

따라서 산련조직은 그간 국가적인 요망에 의한 수월치않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조합은 항상 조합원 혹은 농민에게 조합비 부담과 목전의 이익이 없는 조림, 산림보호등의 역겨운 부역동원에 당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면치 못하였고 연합회는 해마다 회원조합 혹은 산림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에 있어 적기 차입이 어렵고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일반금융자금에 매달려 고충을 겪고 자체의 운영비조달을 위해서도 사업의 취약성과 국고보조의 유동성으로 늘 불안정한 형편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 산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책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금확보문제

74년도의 산련계통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만해도 양묘에 684백만원, 조림에 65백만원, 산림부산물 생산에 2,736백만원, 조경수 및 대로이식에 167백만원, 전되포 조성에 84백만원등 총3,73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임업기금은 금년에 5억원을 용자하게 된것 중에서 산련은 그 일부만을 활용케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적기차입이 곤난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일반

금융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에 지장이 막심할뿐 아니라 자금에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금은 연간10~20억원씩 10년이내에 목표액 200억원이 조기 확보되어 산주가 필요로 하는 산림개발사업 자금과 산련계통의 사업자금도 장기 저리자금으로 안정화되어야 할 것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아울러 산련이 임업신용업무 취급기관으로 제도화되어 산림관계 모든 사업자금을 안전하게 용자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도사업의 강화와 임직원의 자질향상

임업계통에는 농업분야에 비하여 아직도 기술지도를 위한 전담기구가 없을뿐 아니라 참고자료, 교재, 장비가 너무나 빈약하며 산련계통에서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사업을 전담코자 하나 협산림조합의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이 우선 시급하며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된 새로운 임업기술을 일반 임업경영자 또는 산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행물의 양산(量產)과 고정방송, 지도전단요원 및 교재 장비의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산주조림의 촉진과 산림조합의 육성.

정부치산녹화 10년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산주대회를 통한 조림명령서의 교부 및 산주조림의무의 다짐으로 조림의 욕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도 산주들은 조림에 필요한 묘목과 비료의 구득, 수속절차, 자금의 입수, 임업기술등 여러가지면에서 난점이 많아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림조합과 산련은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산주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할수있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산련의 발전방향

앞으로 산련은 산하시군산림조합을 산주를 위하는 체계로 전환시켜서 산주와 산림관계 사업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조합은 명실상부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한편 현재까지의 조합원인 산림계는 그대로 지도사업을 명행하여 새마을 운동 체제의 산림사업 수행단체로 발전시키고 그들의 부담금은 전액이 마을의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유효하게 쓰여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산림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미 산림법상에 특수조합원의 가입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조합파연합회의 업무면에 있어서도 임산물과 임업 자재의 알선, 임업자금의 알선 또는 운용, 무역등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더욱 획기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오원의

자질향상과 자금문제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여기 일본에 있어서의 산림조합의 예를 1971년도 현재로 개괄하면 조합원을 위한 산림경영지도, 산림사업 또는 경영의 수탁 임업자금대부, 물자공급 임산물 판매등 산림협동조합원리의 시설조합과 조합의 출자에 의한 산림에 대한 공동경영 업무를 맡고 있는 생산조합의 두가지가 있고 이를 회원으로 한 현(縣) 단위 연합회와 이를 다시 회원으로 하는 전국 연합회가 있다. 시설조합 2,463개, 생산조합 1,359개에는 1,032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임산조합등의 작업반 역할을 하는 상용노무반 6,856개가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시설조합에 있어서의 시설장비와 사업규모를 보면 별표와 같이 방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사업 및 수수료 총액이 1,063억엔에 달한다는 점과 지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4억 4천만엔, 이용사업에 의한 수수료수입이 47억엔, 그 가운데 조림사업 보조금 취급 수수료수입만도 9억엔, 산림조합을 통한 응자금대부액 206억엔, 당년도 말현재 대부잔고누계 1,093억엔, 당년도 이자수입 61억엔, 당년도 응자수수료수입 6억 7천만엔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縣) 산련과 전국 산련에서도 각각 산하조합을 위한 업무외에 자체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되는 국고

| 施設 및 裝備(施設組合 1971 現在) | | |
|-----------------------|---------|---------------------|
| 區 分 | 施 設 | 內 容 |
| 事務室倉庫 | 1,912棟 | 271千m ² |
| 常用勞務班 | 6,856班 | 63千名 |
| 苗圃 | 1,450個所 | 1,365ha |
| 土場 | 26個所 | 281千m ² |
| 植穴下刈機 | 16,047臺 | |
| 自動鋸 | 11,799臺 | |
| 集材機 | 2,254臺 | |
| 트럭타 · 부트도자 | 439臺 | |
| 트럭 · 마이크로버스 | 2,203臺 | |
| 林道 | 6,840路線 | 10,511km |
| 製材工場 | 164個所 | 6,372kw |
| 加工工場 | 96個所 | 7,341kw |
| 貯木場 | 13棟 | 4,122m ² |
| | 394個所 | 981千m ² |

보조사업으로서 임업구조개선사업, 보조금 66억엔, 이산(里山)재개발사업보조금 2억엔, 노무반 노동대책보조금 2억엔 등을 신령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산림면적도 한국보다는 크고 임목 축적

| 事業量 | | (施設組合 1971年) |
|--------------|----------------------|--------------|
| 區 分 | 事業量 | 金額百萬圓 |
| 1. 販賣事業 | | 15,728 |
| ○原木 | 222千m ³ | 1,400 |
| ○木材 | 1,053 " | 10,573 |
| ○포고 | 1'279% | 2,579 |
| ○其他 | | 1,176 |
| 2. 林產事業 | | 25,127 |
| ○木材 | 2,017千m ³ | 23,892 |
| ○其他 | | 1,235 |
| 3. 加工製造事業 | | 5,842 |
| ○製品 | 112千m ³ | 2,908 |
| ○木材 | 450 " | 2,325 |
| ○其他 | | 609 |
| 4. 購買事業 | | 11,961 |
| ○山苗 | 495百萬圓 | 7,549 |
| ○肥料 | 11,469% | 570 |
| ○其他 | | 3,841 |
| 5. 養苗事業 | | 1,645 |
| ○生產販賣 | 150百萬本 | 1,590 |
| ○受託生產 | 9 " | 30 |
| ○種子 | 6,624千l | 25 |
| 6. 山林造成事業 | | 19,509 |
| ○新植造林 | 76千ha | 6,700 |
| ○育林 | 350 " | 6,596 |
| ○治山 | | 1,012 |
| ○林道 | 1,230km | 3,854 |
| ○其他 | | 1,347 |
| 7. 指導事業(財源) | | 1,171 |
| ○賦課金 | 1,043組合 | 617 |
| ○補助金 | 1,370 " | 443 |
| ○其他實費收入 | 615 " | 2 |
| 8. 利用福利厚生事業 | | 4,679 |
| ○調查收入 | 1,244組合 | 333 |
| ○林道利用料 | 108 " | 150 |
| ○林業機械利用料 | 1,028 " | 1,261 |
| ○造林補助金取扱手數料 | 2,186 " | 916 |
| ○森林國營保險取扱手數料 | 1,097 " | 34 |
| ○森林災害共濟取扱手數料 | 733 " | 33 |
| ○其他手數料 | 2,073 " | 1,951 |

이나 임업선진개발의 도가 크지만 산림조합의 임업에 대

金融事業(단위: 百萬원)

| 區 分 | 當期貸付額 | 期末貸付額 (累計) | 高受取利子 | 手數料 |
|---------------|--------|---------------|-------|-----|
| 合 計 | 20,602 | 109,319 | 6,087 | 674 |
| (1) 公 庫 資 金 | 9,400 | 63,606 | 2,456 | 455 |
| ○ 造 林 資 金 | 2,752 | 14,746 | 497 | 87 |
| ○ 林 業 經 營 改 善 | 5,716 | 42,024 | 1,567 | 305 |
| ○ 其 他 | 932 | 6,836 | 392 | 62 |
| (2) 中 金 資 金 | 9,634 | 43,910 | 3,478 | 133 |
| ○ 森 林 擔 保 金 融 | 8,179 | 42,005 | 3,344 | 129 |
| ○ 其 他 | 1,455 | 1,905 | 134 | 4 |
| (3) 其 他 資 金 | 1,569 | 1,803 | 153 | 86 |

한 사업과 역할의도는 우리나라와는 임업 규모의 차이 보다 비교할 수없을 만큼 큰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차는 임업이 산업 발전과 국리민복의 터전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진대, 이의 발전을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이 하루속히 커져야 할 것이며 또 그역할의 방식이 일본의 시설조합내지 협동조합 원리의 산림조합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업계의 중지를 모은 연구와 산림조합조직의 임업에의 활용 그리고 산주, 산림경영자들의 산림조합을 통한 권익도모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으며 이를 축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